

▶ **전일동향**

'진돗개 발령'소동에 北리스크 주목하며 상승압력

- 전일 달러-원 환율은 전일부터 불거진 북한 리스크가 이날 오전 중 '진돗개 하나'발령까지 이어지면서 상승압력을 받았다.
- 전일 서울환시 마감 이후 북한의 '제 1호 전투근무태세'성명의 영향으로 역외 차액결제선물환(NDF)환율이 오르면서 개장가부터 올랐다. 게다가 오전 중 '진돗개 하나'발령까지 이어지면서 달러 매수 심리가 유발됐다. 이로 인해 달러-원 환율은 3거래일 만에 다시 1,110원대로 상승 압력을 받으며, 5.9원 오른 1,111.6원으로 마감했다.
- 코스피는 북한 관련 위기감이 진정된 후 미국과 국내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였다는데 주목하며 탄력을 받아 9.7포인트 오른 1,993.44에 마감했다.

전일 달러 변동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
	<b>1106.20</b>	<b>1111.90</b>	<b>1105.50</b>	<b>1111.60</b>	<b>1109.20</b>

전일 엔화 변동	시가	고가	저가	종가
	<b>1170.85</b>	<b>1182.12</b>	<b>1165.94</b>	<b>1176.97</b>

▶ **금일 전망**

유로화 하락과 외국인 주식배당금 지급 등으로 1,110원선 등락예상

- 금일 달러-원 환율은 유로존 불안에 따른 매수 압력과 예정된 외국인 배당금 지급이 맞물려 1,110원선 등락이 예상된다.
- 키프로스는 뱅크런 방지를 위해 자본통제 방안을 마련했다. 무역대금 결제를 제외한 모든 계좌의 해외 송금이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된 상태다. 이탈리아 역시 집권 민주당의 연립 정부 구성이 실패하면서 정국이 불안하다. 키프로스 및 이탈리아의 우려에 달러 매수 심리가 다시 커질 수 있다. 북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서울환시는 매수 심리가 유지되는 분위기다. 다만 수급상 외국인 주식배당에 주목할 만하다. KT&G가 금일 2억 1만달러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하단을 떠받칠 가능성이 있다. 따라서 금일 달러-원 환율은 1,110원선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.
- 뉴욕증시는 이탈리아 및 키프로스 등 유로존 우려 부각 및 美 주택지표 부진 등으로 혼조를 보였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<b>1104.00 ~ 1116.00 원</b>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▶ **체크포인트**

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2130.6억원

---

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.90원하락

---

■ 美 다우지수 : 14526.16, -33.49p(-0.23%)

---

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90.49 억달러

---

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282 억원

---

#### 주의사항

※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.

※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